

ETC

전보경 진나래 이샘

ROK

시화, 시가 되다
Sihwa, Poetized

ETC
전보경, 진나래, 이샘

경기창작센터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기억>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박솔기

행정지원
채지용(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이현인, 서정민, 조혜정,
이주현, 조근하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육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번역
신해린,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3. 4

본 출판물은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in 2013
<Memory>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Kaye Yoon,
Park S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Choi Chi Yong(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ee Hyunin, Seo Jeongmin,
Cho Hyejung, Juhyun Lee,
Keunha Cho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i,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Haerin Shi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4 March, 201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Memory> of 2013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기억>을 열며

경기창작센터의 2013년 하반기 특별전은 당해 입주작가 5인(팀)의 소규모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창작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 대규모 상설전으로 입주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였고 참여작가인 김미란, 박형근, 고영택, 이혁준, ETC 총 5팀이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전개해 오던 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향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용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창작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야키요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혁준의 결과보고전이자 소유와 욕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그 본질을 돌아보고자 반문하는 새 작업을 소개하는 <AIAV결과보고전: 소유_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점점 무너져갈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영택의 영상설치 작업 <징후 - 무너지는 것의 무게>, 작가의 꿈과 환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거대한 와이어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김미란의 <기계의 무의식>,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의 생태지대 곳자왈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자연지대에 대한 기억, 그 장소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상흔을 통해 작가를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보여주는 박형근의 <금단의 숲: 곳자왈, 숲의 기록 2009-2013>,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만든 프로젝트, ETC의 <시화, 시가 되다> 는 모두 '기억'(memory)을 매개로 독특한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TC
 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
 일시적 합의 기업
 Info.theetc@gmail.com
 http://theetc.blogspot.kr/
 http://nakwonfamily.wordpress.com/
 http://kimsunnyo.blogspot.kr/

ETC, Enterprise of Temporary Consensus는 일시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기업으로, '기타등등'이란 뜻의 기존의 단어 'etc.'와 함께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ETC의 사명서, 비전, 정신 가치, 경영방침과 목표 등은 한국노동연구원, 문화관광부를 패러디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특별한 사회적 지위체계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가가 스스로에게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는 시도이며, 그 간의 작업들을 통해 이솝, 전보경, 진나래는 허구와 사실을 혼합한 시각을 통해 현실에 개입하고 일상, 공공의 장소, 커뮤니티에 또다른 층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TC가 최근 집중하여 탐구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도시/지역', '실재+허구', '협업', '사회의 시스템' 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장소, 인물, 역사 리서치를 통해 상상의 내러티브를 개발하고 공연,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하며, 안내관광, 대인대행 서비스 등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 시스템을 패러디하거나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명서]
 이티씨는 연구및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티씨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며, 예술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티씨는 인류의 요구에 반응하고, 전지구적 문제를 공유하고, 국제적 시스템 밖에서 예술적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비전]
 사람 중심의 사회와 예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허브

[정신가치]
 Esteem 존중
 Trust 신뢰
 Commit 헌신

[경영방침] 3관
 관찰 - 지속적 연구 및 활동수행
 관심 - 필요로 하는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
 관계 - 쌍방교류와 소통

[중장기 경영목표]
 연구 - 현상의 다각도 고찰
 서비스 - 퍼포먼스 / 출판 / 전시 및 부대행사
 변화와 혁신 - 인식의 변화 / 삶의 질 향상

Sihwa-Poeized

ETC

시화, 시가 되다

ETC
 전보경, 진나래, 이솝

'Sihwa/Poetized' is ETC's research based art project about a group of islands of Gyeonggi-do, including Daebudo and Seongamdo. These islands were once separated, but they are now connected together to the mainland by Sihwa embankment. ETC researches and gathers stories of locals in order to create a new collective story about Kim Sun Nyo; a woman's life. This story will be presented as a collaboration work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singer, and a video that documents local sites and narratives in relation to her life. This story conveys geographical-geopolitic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local history and cultural contexts;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Gyeonggi Province, but also the process of compressed modernization in the island.

'시화, 시가 되다' 는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로 만든 프로젝트이다.

ETC는 한국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번영과 성장을 위한 개발 논리에 의해 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신문조사, 책, 지역연구 및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추적하였다. 이렇게 모여진 자료들은 섬의 '연육'을 통한 압축적 근대화를 지난 섬/삶의 형식의 변화를 보여주며 ETC는 이 내용을 가상의 한 여성의 삶에 섬의 변화를 비유하여 작업을 풀어나간다.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더불어 여성들의 생애사적 조사를 바탕으로 창조된 한 여성인 '김선녀'의 인생 이야기는 개인의 기억 속에만 남겨져 있고 거대한 역사로 편입되지 못한 경기도 특유의 역사적 사회 구조 속의 여성의 위치와 모습을 드러낸다.

'김선녀' 일대기를 판소리 공연과 설치물을 통해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흐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고자 한다.

추상적 설치와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극의 형식은 연육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변화된 연안의 역사적 흐름과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보여준다.







만인보(萬人譜), 그 끝없는 이야기

이것은 잡담(雜談)이면서 비평이다. ETC의 작업들을 한 줄 비평으로 써 내려가기 보다는 여럿의 말들로 말의 그물을 짜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전시 때마다 어망 속에 전구를 넣어 밝혔듯이 말의 그물 속에서 비평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필라멘트 불빛으로 타오르기를 바랐다. 등장인물들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인물들로 창조된 것이지만, 수차례 ETC 작업과 마주했던 나의 분신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떠돌고 있는 장소나 공간이 어딘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 사람은 그저 말로써 존재할 뿐이다.

시인: 구실을 넘겼으나,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 찬연한 동백꽃처럼 붉고 싱싱하다
비평가: 불혹에 다다랐으나, 여전히 그의 삶은 20대 청춘의 질풍노도다
무녀: 열다섯에 신병을 앓고 열여덟에 내림굿을 한 뒤 말문이 터졌다

파란만장: 사물들의 날이미지 언어

비평가: 수다의 시작을 스페이스 빔에서 먼저 시작해 볼까요? 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파란만장波瀾萬丈, 만개의 파도 A life full of ups and downs>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전시는 대부도에서 그들이 채집한 대부도 사람들의 굴곡진 삶과 그 삶에 깃들어 있는 개발주의 근/현대사, 그리고 그 비틀린 삶과 역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둘로 쪼갤 수 없는 지경을 보여주는데, 또한 그것은 기존의 ‘착한’ 미학적 형식이 보여주었던 예술과 삶의 선명한 경계를 여기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빔이 옛 인천양조장 건물의 속을 날 것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화이트 큐브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듯이, ETC가 선택한 미학적 오브제나 그 설치방식도 그 교란의 카오스 공간에서 싱싱한 날 것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브제들이 무작위로 나뒹굴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컴licated 어둠을 몇 개의 전구들이 불 밝히고 있는 <파란만장>의 공간은 뚜렷하게 삶의 현실이 투영된 우물 속이었으니까요. 우물 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의 이면, 즉 실체적 그림자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현실로부터 길게 과거로 이어진 그림자 말예요. 그렇다고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거무튀튀한 그림자는 아녜요. 작품들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김종길
미술평론가

싱싱한 리얼리티는 잊혀거나 사라진 기억들이 아니라 결코 잊혀 질 수 없는 것들, 아니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생생했던 것 같아요.

시인: 살아있는 오브제들이라, 그렇다면 그것은 날(生)이미지겠군. 생이미지라고 해야 어감이 더 좋을까? 날이든 생이든 그 살아있는 이미지들은 작품에 붙어서 작품의 외피를 이루는 비늘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는 허파와 심장으로 스며들어가 온 몸의 혈류를 파닥거리게 하는 숨결이기도 할 것이야. 어두운 밤, 스페이스 빔에 내걸린 사물들을 밝히는 전구들을 보고 있으면 그 빛이 날이미지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림이나 조각을 비추는 할로겐 빛이 아니라 그건 백열등이었지. 할로겐이 작품만을 비추기 위해 고안된 전구라면 백열등은 사방팔방으로 번져가는 빛이야. 작은 녹색 어망 안에 서너 개씩 전구를 넣어서 빛을 밝힌 것이나, 마치 선녀가 입었을 법한 하얀 옷을 넓게 펴서 걸어 둔 것, 2층 계단 난간을 따라 낡은 그물을 걸어서 밑으로 내린 것, 갯가 개펄을 가꾸었을 호미와 갈퀴, 물지게와 조개 낭이 그 빛으로 싱싱하더군. 사물에 의미를 갖추어서 개념화하지 않고 살아있는 현상 그대로를 제시했어. 사물의 존재성에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 말을 하게 한 셈이야. 오규원의 시들처럼 말이지. 오규원의 「밥그릇과 모래」를 패러디해서 <파란만장>의 공간을 시로 바꿔볼까?

스페이스 빔의 양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래된 벽돌 벽과 마주친다 그 벽에 덧대어서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오는 일곱 개의 계단 옆으로 불쑥 한옥집 처마가 끼어들었다 벽을 뚫고 들어 온 처마의 기울기가 계단 사이에서 빠르게 좁아들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안심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 빔의 전시공간이 널찍하게 펼쳐진다 일곱 개의 계단과 사무동 쪽으로 붙어있는 난간 파이프에는 대부도 어민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걸려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관객을 과거의 오늘에서 미래의 오늘까지 꼭 낚아챈다 그 오늘이 전시 opening의 행사를 빌어 펼쳐지는 판소리를 요청한다 여자가 다섯 번째 계단에서 여섯 번째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판소리의 서막을 터트리면 처마 끝 귀면와가 닦을 울리고 향해를 시작하는데 그 앞에 품질 안전제일이란 글씨가 그물에 걸려서 위태롭다 여자가 난간에서 소리를 하는 동안 계단 밑에 걸린 작은 어망이 불을 밝혀서 노랑계 공간을 연다 사람들이 백열등 불빛에 물들일 필요는 없다 불빛은 귀의 어둠을 건드리지 않는다 양조장이었던 벽들이 생체기를 내뿜 싸아아아아아아- 파도소리를 낸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파도를 볼 수는 없다 사람들은 난간아래와 그물 밑에서 머물거릴 뿐 하얀 벽들기둥이 밝히고 서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섬으로 이어지는 사물들이 바닥을 뒹군다 섬으로 들어가려면 어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 어망 속은 차고 따뜻하다

ETC가 꾸민 <파란만장>의 공간은 은유가 아니라 사물들의 배치였어. 그건 경기창작센터나 문래예술공장에서도 다르지 않았지. 날이미지의 사물들이 날것으로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보아야 할 거야. 사물시의 대가인 프랑시스 풍주는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네. “시를 택하기보다는 사물의 편에 서서 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물에 어울리는 수사학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글쓰기”라고 말이지. ETC의 젊은 작가들이 스페이스 빔과 문래예술공장, 그리고 경기창작센터에 설치한 사물들을 보고 있으면 풍주가 했던 글쓰기 방법론이 떠오르다네. 그들은 예술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편에서 예술을 바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예술적 자아의 간섭이나 통제가 전혀 없는 현실의 파편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지. 사물의 언어 날것 그대로를 말아야. 이것을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할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네. 오규원의 시 한 편을 보게.

7월31일이 가고 다음 날인 / 7월 32일이 왔다 / 7월32일이 와서는 가지 않고 / 족두리꽃이 피고 / 그 다음 날인 33일이 오고 / 와서는 가지 않고 / 두릅나무에 꽃이 피고 / 34일,35일이 이어서 왔지만 / 사람의 집에는 / 머물 곳이 없었다 / 나는 7월32일을 자귀나무 속에 묻었다 / 그 다음과 다음 날을 등나무 밑에 / 배롱나무 꽃 속에 / 남천에 / 쪽박새 울음 속에 묻었다

오규원, 「물물과 나」

31일은 있고 32일은 없는 날이야. 31일이 우리 일상의 시간이라면 32일은 허구일 뿐이지. 그러나 그 현실을 시의 날로 바꾸어 읽으면 32일이야말로 족두리꽃이 핀 개화의 날, 즉 미학이 터진 날이라고 할 수 있어. 시간은 흘러서 33일도 되고 34, 35일이 오지만 그 시간은 그런데 사람의 집이 아니야. 사람의 집에서는 결코 머물 곳이 없는 날들이잖은가. 그래서 시인은 자귀나무에 묻고 등나무 밑에 배롱나무 꽃 속에 남천에, 쪽박새 울음 속에 묻는 것이라네. 32일도 묻고 다 묻어야 해. 인간의 관념, 인간중심의 사유, 오직 인간으로만 귀속되는 말들은 결코 순환될 수 없는 시간만을 불러들이지. 자, 다시 <파란만장>의 사물들을 보게나. 사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것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사물들의 말이 터지는 날들은 바로 31일이 가고 그 다음 날이라네. 나는 ETC가 꾸민 전시 공간들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32일과 33일과 34, 35일의 날들을 보았어.

무녀: 이봐 영감! 그것들을 따로 놓고 보려고 하지 마. 선녀 옷, 선녀 그림, 호미, 지게, 낭, 그물, 어망, 전구, 액자, 노인송가, 재봉틀, 밥상, 막걸리, 영상, 나이가 들면 잘난 체 하지 말고, 다 하나야, 다 하나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람 손을 땀으니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김선녀 이야기라고. 제주도에는 자청비가 있고 대부도에는 김선녀가 있는 셈이지. 자청비가 제주도 농경신이면 김선녀는 대부도 농경신이야. 본래 우리들 이야기가 다 그래. 자청비는 옛날 옛적 할머니 이야기이고 김선녀는 살아있는 대부도 할머니이야기일 뿐이야. 자청비 이야기를 들려줄까? 부모는 주년국 주년뜰의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었어,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부가 부처님께 빌어 자청비를 얻었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딸로 태어났어. 자청비는 손이 고와진다는 말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물 아래 거무 선생한테 글공부하러 간다는 하늘 옥황의 문곡성 문도령을 만나. 그리하여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나서서 3년 동안 거무 선생한테 글을 배우지. 그런데 문도령이 하늘 옥황 집에서 장가 가라는 편지를 받고 길을 떠나게 되자,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나서며 비로소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한 번 떠난 문도령은 종내 소식이 없었어. 우여곡절 끝에 자청비가 기어이 하늘 옥황의 문도령을 찾아가 문도령과 혼례를 올려. 그런데 하늘 옥황의 선비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도령을 죽이게 되지. 그때 자청비는 서천 꽃밭으로 가 환생꽃과 멸망꽃을 얻어다 문도령을 살리고 멸망꽃으로 선비들을 죽여. 자청비는 이제 다시 땅으로 가 살고 싶어졌어. 하늘 옥황에서는 자청비에게 하늘에서 살라고 하지만 자청비는 여러 곡식 종자를 얻어 땅으로 내려오지. 그리고는 중세경이 되어 농경신으로 사람들이 풍년 농사를 짓도록 도와준다고 해. 세계본풀이로 자청비를 노래할라치면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야. 그 긴 이야기를 어찌 말로 다 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섰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며 또한 기어이 하늘로 쫓아가 문도령과 혼례를 하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 판소리 <만개의 파도>를 듣고 있자니 삶이 어찌 그리 파란(波瀾)하고 만장(萬丈)한가! 사람하나 없어도 문래예술공장, 스페이스 빔의 공간들에서 저것들, 저 사물들이 하는 말들이 다 들려.

비평가: 그러니까 그것은 환유(換喩, Metonymy)로군요. 싱싱한 리얼리티로 보았던 저의 생각이 시적 리얼리즘으로서의 날이미지였던 거군요. 또한 그 사물들의 이름 들이 곧 어여쁜 처녀와 숨 가쁜 노동의 갯길과 가난과 배고픔을 보여주는 것이었군요. 게다가 김선녀 이야기가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신화의 모티프였다니 어안이 병병합니다.

한(恨)의 신화, 근/현대사의 여성성

비평가: 그렇다면 김선녀의 환유는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요? 판소리 <만개의 파도>의 가사는 서사입니다. 그 서사는 김선녀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료를 살펴보니 ETC 작가들은 대부분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더군요. 그것은 마치 유사 구술사 연구를 보는 듯했어요. 그렇다고 체계적인 구술사의 문법이나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더군요. 대체로 인터뷰이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지만 생애의 낱낱을 밝히기 위한 심층 인터뷰는 아니었으니까요. 인터뷰 녹취록을 읽다보면 작가들이 오히려 인터뷰이의 말을 듣는데 치중할 뿐 무언가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생애의 파편들을 꿰어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들은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에 고인 말들을 흘러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해요. 예컨대 대부 사진클럽 아저씨의 명언이라고 정리한 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가령, 작가들은 인터뷰이가 흘린 말들 중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은 자신감과 당당함이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센 놈보다 질긴 놈이 이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게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래파워가 있어야 위에파워가 생긴다.”, “농산물은 타이밍이다.”, “고통을 분담하면 배가된다.”와 같은 경구를 발견해 냈어요. 삶의 은유를 일부러 응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의 서사를 토하도록 두니 거기서 한 개인이 걸어 올린 지혜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각자가 다르게 체험한 고통과 편견들이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ETC 멤버들은 낯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언제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진행되어 갔는지를 알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대부도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그림자처럼 딸려 나오는 보상과 빛 문제들, 시화호 간척과 개펄 오염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ETC의 작업은 사람들의 말과 구체적인 역사와 예술적 상상력이 ‘하나의 서사’로 묶이는 미학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개의 파도>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시인: 대부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한 모든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둘러대면 이야기의 힘은 상실되어 버리지. 강조하자면 한 개인의 삶에서 역사의 총체적 난국을 읽어 내는 것이 필요하단 얘길세.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 이야기들을 모아서 말의 그물을 짜야 되는 거야. 판소리 <만개의 파도>는 그것이 산 사람들의 산 이야기들이라는 데에 참으로 놀라운 데가 있다고 할 수 있네. 선감마을 부녀회장의 이야기에서 신씨네 집안으로 이어지다가 대부도 사진클럽 회원으로 넘어가는 녹취록 파일을 보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오버랩 되면서 드디어 구체적인 대부도의 근/현대사가 그려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 더군다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지난한 세월의 파편들이 기억에 박힌 채 뚜렷하게 살아올라 오는 순간을 볼 때면 그것이 또한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현대사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므로 <만개의 파도>는 단순히 ‘김선녀’라는 한 여성의 이미지로 국한해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파란을 견디고 오늘에 다다른 나의 모든 어머니로 읽어야 할 것일세. 자, 그런데 왜 작가들은 ‘김순녀’를 ‘김선녀’로 바꿔 불러야만 했을까?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를 보세나. 선녀의 옷을 훔친 나뭇꾼은 선녀를 인간화 할뿐만 아니라 아내로 삼고 아이까지 낳게 하지. 옷을 빼앗긴 선녀는 옷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나뭇꾼의 울타리를 걸코 벗어나지 못한다네. 선녀와 나뭇꾼의 애뜻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가부장적 폭력의 상징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셈이지. 김선녀는 대부도로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겪어야만 했어. 대부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 게다가 대부도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김선녀의 가족사는 무참히 붕괴되고 그녀 또한 암울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녀에게 대부도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갇힌 세계로서의 울타리라면, 그녀가 안팎으로 겪게 되는 바깥세계의 변화는 공포와 분노가 공존하는 ‘나쁜 세계’의 괴물일 뿐이야. 전래동화에서는 선녀가 옷을 찾아 입고 하늘에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끝없이 추락해. 제주도의 절세미인 자청비도 하늘에 올랐다 내려와서는 농경신이 되는데 말이야. 우리의 김선녀는 어떤 결말이 남아 있지?

무녀: 곳이 필요한 시간이야. 남긴 뭐가 남아. 귀신이 되는 일단 남았지. 중음신으로 떠돌지 않으려면 살았을 때 곳을 해야 해. 살아서 쌓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귀신도 쉽게 되질 않아. 그런데 곳을 하기 전에, 산 사람의 곳은 말이지, 산 사람의 역사를 다 들통 내야만 시작할 수 있어. 들통 내는 게 뭐냐고? 아픈 것들을 불러내는 것이야, 깊이깊이 가라앉아서 잊고 있었던 ‘김순녀’를 불러내는 것이지. 그래야 해. ETC 예술 사면들이 시작한 게 바로 그거야. 내가 할 일을 대신한 셈이지. <만개의 파도>는 판소리가 아니라 무궁이야. 어르고 달래서 김선녀 김순녀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부턴가 김선녀가 섬마을에서 보이질 않는다고 해. 누구는 자식들이 있는 육지로 갔다고 하고 누구는 몰래 어느 요양원에 갔다고 하고, 누구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김순녀 김선녀는 노인송가에 갇혔고 어여쁜 선녀 그림에 갇혔지. 사람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니야. 내 눈에는 아직도 김선녀가 대부도 언저리를 걷는 게 보여. “절뚝절뚝 걸어간다, 흰칠한 키를 반으로 접어, 앙상한 두 다리로 벽을 짚으며 걸어간다, 백옥처럼 하얀 피부 바닷바람에 날아가고, 눈일 발일 갯벌일 새까만 피부만 남았구나, 외딴 섬에 청춘을 묻고 가슴에 남편을 묻고, 포도농사 자식농사 허리가 휘청, 절뚝절뚝 걸어간다 김선녀가 걸어간다, 절뚝절뚝 걸어간다.”

비평가: 그래요. 어쩌면 <만개의 파도>는 아직 대부분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몰라요. 아직 삶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섬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ETC가 꾸리고 있는 김선녀의 공간들은 그것 그대로 김선녀가 머무는 당집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문래예술공장을 보니 아시바로 대부도의 공간성을 구조화 한 뒤에 스페이스 빔에서처럼 날이미지의 사물들을 배치했더군요. 군데군데 구술 인터뷰 영상과 사진들이 박혀 있고 여전히 그물들로 세계를 경계짓기 했어요. 무대 덧마루를 쌓아 두기는 했으나 그 공간을 탁월한 연극성으로 채우기에는 무언가 맞지 않았어요. 소리꾼이 올라서서 손을 휘휘 저으며 노래를 불렀던 작은 무대나 고수가 앉았던 사물들이 꼭 섬처럼 공간에서 부유하더군요. 빈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미지로만 남은 개념적 공간으로서의 작품이었어요. 아,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TC의 예술은 학습된 바 없는 예술이에요. 이것은 미술도 아니고 판소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대미술도 아닙니다. 이들의 예술언어는 공연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공연이면서, 관람될 수 없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전시로서 <만개의 파도>는 여기저기 이 공간 저 공간을 숙주인양 떠돌면서 개인의 역사를 총체화 하고 그 총체화 된 미학적 사건으로 가로지르기를 시도하지요. 비틀린 현실을 비틀렸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것들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 거기에 방치되었거나 짓눌렸거나 혹은 억압받았던 주체들을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들의 예술이 생경하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실했던 미술 바깥의 새 미술언어라 아닐는지요.

시인: 그렇다오. 이제껏 있어왔으나 또한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던 예술의 언어라 할 것이요. 무엇이라 딱 꼬집어서 연상될 수 있는 장르화를 시도하지 말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예술지대를 형성해 나가는 듯 하되다.

무녀: 노래하고 춤추고 신들린 듯 신명이 나는 곳에 곳이 있었지. 영락없는 굿판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만 내림굿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제의의례를 학습해서 굿의 미학적 전통을 창조하듯이, 이 또한 미의 의례를 버리지 말고 익혀서 새 것으로 창조해야 할 것이야.

ETC
info.theetc@gmail.com

주요 개인전

- 2013 *시화: 시가 되다 Sihwa: Poetized*,
문래 예술 공장 M30
낙원가족 서비스 Nakwon Family Service,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파란만장 A life full of ups and downs,
스페이스 빔, 인천
도시 신사 A씨의 쾌적한 집들이
Pleasant Housewarming of the City
Gentleman Mr. A, 교남동 빈 집, 서울
- 2012 *If you dream it: ○□★△× (도시 여행상품 개발)*,
서울역-후암동, 서울

주요 그룹전

- 2013 *기억 Memory*, 경기창작센터
삼일야화: 경기창작센터 오픈 스튜디오
Three Days and Nights in Island:
Gyeonggi Creation Center Open Studio,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 2012 *오프앤프리 국제영화예술제*
OFF AND FRE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아르코, 서울
그 '거리 distance'의 창의적 자세, 금천예술공장, 서울
Back to the Future: ○□★△× (도시 여행상품 개발),
배다리 지역, 인천

출판

- 2013 *도시 신사 A씨의 쾌적한 하루생활*
A Pleasant Day of the City
Gentleman Mr. A, zine
- 2012 ○□★△× 서적 발간
KUNSTVLAAI: Festival of Independents,
서적발간 기념행사, 네덜란드

수상 및 레지던시

- 2013 유망 예술 지원 사업 MAP프로젝트
다원예술부분 지원 선정
인천문화재단 한국예술위원회 창작 지원 선정
2013 하반기 창동 창작 스튜디오 지역 프로젝트
경기창작센터 기획 레지던시
- 2012 NIGHT WALKERS in INCHEON 레지던시,
스페이스빔